

『園冶·相地論』 研究(3): ‘城市地’를 중심으로

黃 琪 源*

〈目 次〉

I. 序 論	III. 釋 明
II. 譯 註	IV. 結 論

I. 序 論

1. 연구의 개요

計成이 지은 『園冶』(1634)의 한 편인 「相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첫 부분은 相地하는 일반론에 해당하는 통론이고, 다음 부분은 계성이 적합하다고 선정한 여섯 가지 園基의 유형 별로 相地の 원리와 기법을 각각 논하고 있는 각론이다.¹⁾ 이 연구의 주제는 뒷부분에 해당하는 각론의 일부분으로서,²⁾ 도시 안에 조영하는 城市地 원림이다.

이에 연구자는 ‘城市地’의 관련 문장을 譯註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相地, 즉 부지 선정, 분석 및 설계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역주에서 인용된 원문의 저본은 중국에서 營造學社가 출판한 『園冶』(1932), 城市建設出版社의 영인본 『園冶』(1957), 廣文書局의 영인본 『園冶』, 한국에서 도서출판 造景이 영인본으로 출판한 『園冶』(1990)으로 하였다

이들 저본에서 발견되는 몇 군데의 오류나 의문점에 대한 교열과 해석의 참고를 위해, 陳植이 注하고 中國建築工業出版社가 출판한 『園冶注釋』 제2판(1988),³⁾ 張家驥가 지은 『園冶全釋』

*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 1) 「相地」는 『園冶』의 서론에 해당하는 「興造論」에 이어, 소주제 10개로 구분하여 원림을 조영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기술을 다루고 있는 「園說」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다. 「상지」에서 제시하는 園基의 유형은 6가지로서, 1) 山林地, 2) 城市地, 3) 郊野地, 4) 村庄地, 5) 傍宅地, 6) 江戸地이다. 이것들은 계성이 독창적 제시가 아니라 이미 수 천년 동안 중국원림문화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되던 부지의 유형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 유형별 相地論의 내용은 중국 원림문화의 보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계성이 사고하고 경험한 원리와 기법들을 보태어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相地」의 통론에 관한 연구는 황기원(1995). ‘山林地’에 관한 연구는 황기원(1996)이다.
- 3) 역주에 있어 주로 참고하는 서적은 진식의 『園冶注釋』이다. 이 책은 초판이 1981년에, 제2판이 1989

(1993) 및 曹 의 논문 『『園冶注釋』疑義舉析』(1984), 黃長美가 撰述한 『園冶』(1986), Alison Hardie가 번역 및 주석한 *The Craft of Gardens*(1988) 등을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譯注 및 釋明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園冶』의 여러 이론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인용하거나 참조하였다.

2. 相地 통론의 요약

먼저 전차 연구(황기원, 1995)에서 도출된 「相地·通論」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相地の 정의

원림을 조영하는 興造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相地이다. 이때 相地는 좁은 뜻으로는 '부지의 분석'(site analysis)이지만, 넓은 뜻으로는 '부지의 선정'(site selection)과 '부지의 설계'(site design)까지 포용한다.

○園基의 유형

원림을 꾸밀 터인 원기의 위치로서 山林地, 江湖地, 郊野地, 村庄地, 城市地, 傍宅地를 들고 있는데, 산림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각 유형 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지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기법을 상술하고 있다.

○적합한 환경

園基 자체의 조건으로서 모든 유형의 부지에서 외진 곳을 들고 있으나, 부지의 방향성에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지형지세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무리한 토공사를 억제하고 있다. 부지를 조성할 때에는 특히 물에 역점을 두어 用水源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水景을 조성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지의 공간은 단위 공간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분할된 공간을 현명하게 조합하여 각 공간의 장점을 서로 연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간의 구성에 있어 길과 울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景物

원림에 베풀 景物로서 식생, 건축물과 가산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 식생의 경우 기존의 자생림이나 식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대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등 주요 수종의 재식 장소와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것이 因, 즉 환경설계에 관한 것이라면, 借, 즉 차경을 통한 경관설계에 대해서도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相地の 목적

계성은 「相地」의 궁극적 목적을 '相地合宜 構園得體'라는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다. 다시 말

년에 출판되었다. 원문의 일부가 교열되었고, 주석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제2판을 참조하도록 하며, 진식(2: 쪽수)으로 표기하고 있다.

유형별 특징

유형	입지 환경	특징	목적
山林地	임목이 우거진 산림	○天然之趣를 이루고 있어 人事之工이 불필요하므로 園基로서 가장 좋은 곳	○閒閒即景 ○寂寂探春
城市地	번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내의 幽偏한 곳	○원래는 원림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나 幽偏한 곳이면 가능.	○得間即詣 ○隨興 遊
村庄地	시골 마을 내의 농장	○자연을 즐기기 위해 시골 마을 일대에서 경치가 빼어난 곳을 선정함.	○歸林得意 ○老圃有餘
郊野地	城市와 가까운 시골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곳	○陣風月清音 ○休犯山林罪過
傍宅地	살림집과 인접한 곳	○간소하고 편리한 곳	○便于樂間 ○護宅之佳景
江湖地	강변이나 호반	○물과 땅이 만나는 곳	○尋閒是福 ○知享即僊

해서 땅을 잘 살펴서 구한 원림터가 환경이나 경관에 관한 조건에 적합하면, 그 위에 꾸미는 원림은 저절로 바람직한 형상의 틀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이 점은 계성이 「興造論」에서 설파한 것처럼 “원림을 만들 때에는 주어진 환경 조건을 과학적으로 파악, 활용하는 인지와, 바깥의 경관을 이끌어 들이는 차경에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할 뿐 아니라, 인지에 있어 자연과 인공의 상호 적합성을 살리는 제외와, 차경에 있어 원림 내외의 형태를 살리는 득체에 예술적으로 뛰어나야 한다(園林巧于因借 精在體宜)”는 원리를 相地의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다.

Ⅱ. 譯 註

相地-城市地

〔訓譯〕

- ① 市井은 不可園也이다. 如園之는 必向幽偏可築하다. 隣雖近俗하더라도 門掩無譁하느니라.
【市井은 (造)園이 不可하다. 만약[如] 之에 (造)園하자면 必히 幽偏에 向하면 可築하다. 비록(雖) 隣이 近俗하더라도 門掩하면 無譁하느니라】
- ② 開徑 하고 竹木遙飛疊雉하다. 臨濠 하고 柴荊橫引長虹하다.
【開徑에 하고, 竹木(間)에 疊雉가 遙飛하다. 臨濠에 하고, 柴荊에 長虹을 橫引하다】
- ③ 院廣하면 堪梧하고, 堤灣하면 宜柳하다. 別難成墅하니 茲易爲林하다.

【院이 廣이면 梧를 堪하고, 堤가 灣하면 柳가 宜하도다. 別(途)로 成墅함이 難하니 茲에 爲 林이 易하도다】

- ④ 架屋隨基하고 澹水堅之石麓하도다.

【架屋은 隨基하고 澹水는 石麓으로써[之] 堅하도다】

- ⑤ 安亭得景하고 蒔花笑以春風하도다. 虛閣蔭桐하고 清池涵月하도다. 洗出千家煙雨하여 移將 四壁圖書하도다.

【安亭하여 得景하고 蒔花하여 春風을 笑以하도다. 虛閣은 蔭桐하고 清池는 涵月하도다. 千家煙雨가 洗出하여 四壁圖書로 移將하도다】

- ⑥ 素入鏡中飛練이요 靑來郭外環屏이도다.

【素가 鏡中으로 入하니 飛練이요 靑이 郭外에서 來하니 環屏이도다】

- ⑦ 芍藥宜欄하나 薔薇未架이나라. 不妨 石하나 [最]厭編屏이나라. 束[未]久重修하고 安垂不朽 이리오?

【芍藥은 欄에 宜하나 薔薇는 架에 未하나라. 石은 不妨하나 編屏은 [最]厭하나라. 束久하여 重修하면 어찌[安] 不朽를 垂하리오?】

- ⑧ 片山多致하고 寸石生情하도다. 虛蕉影玲瓏하며 巖曲松根盤 하도다.

【片山도 多致하고 寸石도 生情하도다. 虛에는 蕉影이 玲瓏하고, 巖曲에는 松根이 盤 하도다】

- ⑨ 足徵市隱猶勝巢居하도다. 能爲鬧處尋幽하니 胡舍近方圖遠하리오?

【市隱이 오히려[猶] 巢居에 勝함을 足히 徵하도다. 能히 鬧處에서 幽를 尋할 수 있으니[爲] 어찌[胡] 近方을 舍하고 遠을 圖하리오?】

- ⑩ 得閒卽詣하여 隨興携遊하느니라.

【得閒하면 卽詣하여 隨興하며 携遊하느니라】

〔翻譯〕

번잡하고 소란한 도시 안에는 원림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원림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시 내에서도 비교적 그윽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웃이 번잡한 시가지에 너무 가깝다면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원림 안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외부와 단절해야 한다.

원림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은 구불구불하게 내고, 대나무를 위시한 나무는 나무가시 너머로 도시의 높은 성벽이 아득하게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심는다. 원림의 들레에는 해자를 구불구불하게 파고, 원림의 사립문 앞에는 무지개처럼 생긴 다리를 길게 걸쳐놓는다.

뜰이 넓으면 오동나무를 심고, 해자나 지당의 둑이 휘어져 있으면 버드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 원림 안에 따로 별서를 짓기 어려우므로 이곳에는 숲을 만드는 것이 도리어 쉽다.

부지의 바탕을 이루는 지세를 잘 살려서 집을 짓고, 물길을 파내어 물이 잘 통하게 하되 돌로 독을 쌓아 튼튼하게 만든다.

정자는 좋은 경치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세우고, 꽃들은 봄바람을 따라서 웃는 듯이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심는다. 허허로운 누각 주변에는 오동나무를 심어 그늘을 드리우게 하고, 맑은 못에는 달빛이 비치도록 한다. 비가 와서 있는 도시의 하늘에 자욱하게 드리웠던 더러운 대기가 씻겨지고, 그 비가 개인 후 맑은 밤하늘의 달빛이 사방에 책이 가득 찬 서재의 창 너머로 스며들게 한다.

폭포는 비단을 펼친 듯 흰빛을 발하면서 지당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만들고, 도시 밖에 병풍 처럼 서 있는 푸른 산봉우리들이 잘 보이도록 차경을 한다.

작약은 난간 가까이 심는 것이 서로 잘 어울리지만, 장미는 시렁에 올라가도록 심어서는 안 된다. 꽃들이 돌에 걸쳐 자라도록 심는 것은 괜찮지만, 꽃울타리처럼 엮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꽃가지를 계속하여 묶어두고 심하게 손질하면 어찌 그 꽃이 상하지 않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가산은 비록 작지만 정치가 많도록 꾸미고, 피석은 비록 작지만 정감을 자아내도록 놓는다. 열린 창 너머로는 파초를 심어 그 영롱한 그림자가 드리우게 하고, 구불구불한 바위틈에는 소나무를 심어 그 드러난 뿌리가 넓게 뻗어나도록 심는다.

이처럼 원림을 꾸미면 번잡한 도시 가운데에서 은거하는 것이 고요한 자연 산림 속에서 은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그윽한 분위기를 능히 찾을 수 있으니 어찌하여 가까운 곳을 저버리고 멀리 갈 까닭이 있겠는가?

한가한 틈이 날 때마다 이 원림을 곧장 찾아가서, 흥을 좇아 벗들과 더불어 노닐 수가 있다.

[義譯]

- ① 시정에서는 원림을 만들 수가 없다. 만약 여기에 원림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윽하고 한적한 곳을 향하여야 만들 수가 있다. 비록 이웃이 속세에 가깝더라도 문을 닫으면 시끄러움이 없다.
- ② 오솔길은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죽목은 성벽이 멀리 높게 솟아 있게 심는다. 원림을 두르는 해자는 구불구불하게 파고, 원림의 사립문 앞에는 무지개 다리를 길게 걸친다.
- ③ 돌이 넓으면 오동나무를 능히 심고, 독이 휘어져 있으면 버드나무가 알맞다. 따로 별서를 짓기 어려우니 이곳에 숲을 만드는 것이 쉽다.
- ④ 지세를 따라 집을 짓고, 물길을 파내고 돌로 독을 쌓아 튼튼하게 한다.
- ⑤ 정자는 경치를 얻도록 짓고 꽃은 봄바람을 맞도록 심는다. 허허로운 누각 둘레에는 오동나무의 그늘을 드리우고 맑은 못에는 달빛이 잠기도록 한다. 비가 와서 도시에 자욱하게 드리운 더러운 대기를 씻어내니, 비 갠 후 맑은 달빛이 네 벽에 책이 가득한 서재로 스며든다.

- ⑥ 흰빛이 거울 속으로 들어오니 나르는 비단 같은 폭포이다. 푸른빛이 성밖에서 찾아오니 푸르게 두른 병풍이다.
- ⑦ 작약은 난간 가에 심는 것이 알맞으나, 장미는 시렁에 올려서는 안 된다. 꽃들을 돌에 걸치도록 심는 것은 무방하지만, 꽃을타리처럼 엮어 놓는 것은 가장 꺼린다.
오랫동안 묶어두고 심하게 손질하면 어찌 상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겠는가.
- ⑧ 작은 가산도 운치가 많고 작은 돌도 정감을 자아낸다. 열린 창 너머로는 파초의 그림자가 영롱하게 드리우고, 구불구불한 바위틈에는 소나무 뿌리가 넓게 뻗어 있다.
- ⑨ 시정 속에서 은거하는 것이 산림 속에서 은거하는 것보다 더 나음을 족히 증명할 수 있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그윽한 분위기를 능히 찾을 수 있으니 어찌 가까운 곳을 저버리고 멀리 갈 까닭이 있겠는가?
- ⑩ 한가함을 얻어 곧장 찾아가서, 흥을 좇아 벗들과 더불어 노닐 수가 있다.

[注譯]

①

- 市는 저자, 市街이고, 井은 우물, 마을이다. 市井은 1) 저자, 2) 시가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번잡하고 소란한 시내'라고 풀이한다. 市井之人이라는 말이 있어 시중의 속인을 가리키며, 市井雜輩라는 말은 이보다 더 알잡아 보는 말이다. 井戶는 시장 가운데 있는 집을 가리키는데, 이때의 井은 옛날의 장터를 말한다.
비슷한말로서 巷이 있다. 이것은 마을 안에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 곧은길은 街라고 하고, 굽은 길은 巷이라고 하였다. 또 마을, 문밖이라는 뜻도 있다. 陋巷은 좁고 지저분한 거리, 빈천한 사람들이 사는 협소한 골목을 가리킨다. 이때 陋는 좁다, 낮다, 천하다, 보기 흉하다 등의 뜻이 있다.
- 之는 강조하는 어조사로 보면 '꼭'이라고 풀이된다. 진식은 '꽤'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지를 지시대명사로 보면 '이곳'으로 풀이된다. Hardie는 '그곳' (there)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곳'이라고 풀이한다.
- 如是 '같다'는 뜻보다는 '만약', '가령' 등과 같은 假定的 뜻으로 풀이한다. [興造論]에 쓰인 假如와 뜻이 같다.
- 幽偏은 그윽하고 한적하다는 뜻이다. 偏은 번잡한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한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興造論]의 '偏'缺이나 [相地通論]의 '似'偏에서는 '땅이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졌다'라는 뜻이다.
- 俗은 시정의 세속적 환경을 가리킨다.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의 '釋明'을 참조하라.
- 門掩은 '문을 닫아건다'는 뜻이다.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의 '釋明'을 참조하라.
- 譁(화)는 시끄럽다, 떠들썩하다는 뜻이다. 譁然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가리키고, 譁眩은

귀가 따갑고 눈이 어지러움을 가리킨다.

②

- 逶迤(위이)는 구불구불한 모양, 물이 굽어 흐르는 모양 등을 묘사하는 말이다. 逶蛇이라고도 한다.
- 蜿蜒(연완)은 뱀이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모양이나 산맥이 길게 이어진 모양 등을 묘사하는 말이다.
- 遙飛는 ‘멀고 높다’는 뜻으로서, 죽목을 심어 그 너머로 성벽이 아득하게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지침을 가리키고 있다.
- 雉에는 1) 평, 2) 척도의 단위, 3) 담, 성벽의 성가퀴, 4) 고삐, 5) 주사위의 눈, 6) 풀을 베다, 7) 평평하게 하다 등의 뜻이 있는 바, 여기에서는 3)의 뜻을 취하여 ‘성벽’이라고 풀이한다. 진식(1988: 60)은 城牆, Hardie(46)는 city-wall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 濠는 원래 성 둘레를 따라 파는 방어 및 배수용 壕字(moat)를 가리킨다. 진식(1988: 60)은 단순히 원림 안의 池沼로 풀이하고 있으나, 성시원림이 외부의 시끄러운 세상과 격리하는 지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자로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蘇州의 滄浪亭 바깥의 둘레를 흐르고 있는 개천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柴荊(시형)은 1)잡목 2)茅屋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박한 사립문을 가리키는 柴門, 荊扉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 橫引은 홍예교를 가로질러 놓는다는 뜻이다.
- 長虹은 ‘긴 무지개’라는 뜻이나, 무지개처럼 생긴 虹蜺橋를 가리킨다.

③

- 院은 1) 담, 2) 주변이 담으로 둘러싸인 궁실, 3) 관청, 4) 사람이 사는 장소의 범칭, 4) 정원의 저절로 생긴 공간 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4)를 취하여 주택의 ‘뜰’을 가리킨다. 院子, 院落, 天井이라고도 한다. 진식(1988: 60)은 院落이라고 풀이한다.
- 梧를 벽오동나무, 桐을 오동나무로, 楊을 깃버들, 柳를 수양버들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것으로 본다. Hardie는 梧를 phoenix tree, 桐을 pawlownia tree로 구분하고 있다.
- 塹는 방죽, 둑이다. 堤灣에서 灣은 1) 물굽이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2) 활등처럼 흰 모양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앞 구절의 廣과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2)가 적합하다. 灣과 같다.
- 墅는 別墅를 가리킨다.
- 茲에는 1) 무성하다, 늘다, 2) 더욱, 3) 여기, 이에, 4) 곧, 즉시 등의 뜻이 있다. 여기에서는 3)을 취하여 ‘이곳’이라고 풀이한다. 즉 판 곳에 별서를 따로 만들기 어려우므로, 성시원림 안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쉽다는 뜻이다.

④

- 基는 앞에서 나온 園基를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성시원림의 집을 짓는 경우이므로 부지의 바탕을 이루는 地勢로 풀이한다. 진식은 地勢(1981: 53)로 풀이하다가, 地基(1988:60)로 다르게 풀이하였으며, Hardie(46)는 ‘the lie of the land’, 즉 지세로 풀이하고 있다.
- 濬은 바닥을 파내어 물길을 통하게 하는 작업이다.
- 여기에서 之는 ‘오로써’로 풀이된다.
- 麓은 원림 안을 흐르는 개울의 河岸을 가리킨다. 石麓은 돌로 쌓은 둑이다.

⑤

- 安亭은 정자를 좋은 자리에 세운다는 뜻이다.
- 得景은 경치를 얻는다는 뜻인데, 借景을 가리킨다. 진식은 添景色(1981: 53) 또는 增景色(1988: 60)이라고 풀이하니, 경관이 좋은 자리에 정자를 세울 뿐 아니라, 정자 또한 좋은 경물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 蒔에는 1) 모종을 내다, 심다, 2) 풀이름, 3) 小茴香 등의 뜻이 있는데 1)을 취한다.
- 以는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진식은 ‘맞이하다’(迎)로 풀이한다.
- 陰冬은 오동나무의 넓은 잎들이 그늘을 드리우게 한다는 뜻이다.
- 涵月은 못의 물이 ‘달을 적시다’는 뜻이다. 즉 못의 수면에 달이 비치니 마치 달이 물에 젖은 것 같다는 표현이다.
- 千家는 도시의 많은 건물, 또는 많은 건물이 있는 도시를 가리킨다. 煙雨는 연기와 비, 또는 이슬비(細雨)가 아니라, 도시에 연기처럼 자욱하게 더러운 대기가 깔려 있는 기상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洗出千家煙雨는 비가 와서 도시 안의 더러운 대기가 씻겨나가고, 개인 후 청명한 날씨를 가리킨다.
- 將은 1) 보내다 2) 나아가다 3) 전하다 4) 흘러가다 등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다 뜻이 통한다. 移將은 ‘스며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서가의 책장에 비치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다.
- 四壁圖書는 서재의 네 벽에 책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⑥

- 素入鏡中飛練은 글자 그대로는 “흰빛을 띄고 거울 속으로 들어오는 날아가듯 펼친 비단”, 또는 “날아가는 듯 펼친 비단이 흰빛을 띄고 거울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素는 폭포의 흰빛을 가리키며, 뒤에 나오는 靑과 대를 이룬다. 여기에서 鏡은 거울이 아니라, 원림 안에 있는 지당의 고요한 수면을 가리키는데, 明鏡止水라는 말을 연상케 한다. 練은 원래 부드럽게 잘 누인 깨끗한 비단인데, 지당에 설치한 인공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양이 이런 비단을 활짝 펼쳐 늘어뜨린 것 같다고 본다. 그래서 飛練은 飛瀑, 飛泉과 같이 瀑布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폭포가 흰빛을 띄면서 지당으로 떨어진다”라고 풀이된다.

- 靑來郭外環屏도 글자 그대로는 “푸른빛을 띄고 성곽 밖에서 들어오는 둥근 울타리” 또는 “둥근 울타리가 푸른빛을 띄고 성곽 밖에서 들어온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環屏은 둥그렇게 둘러서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킨다. 「借景」에 보면 “먼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遠岫環屏)”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상황이다. 진식(1988: 61)은 “성곽 밖에 산봉우리가 둥그렇게 서 있는데 열려 있는 취병을 닮았다(廓外環列的山峯 似開翠屏)”라고 풀이하고 있다.

⑦

- 芍藥(*Paeonia lactiflora*)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이다. 화초 또는 약용으로 재배한다. 꽃은 5-6월에 피고, 백색 적색 등 여러 품종이 있다. 키는 50-80cm 정도이다. 햇볕이 잘 드는 점질양토에서 가장 생육이 좋으며, 비료분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뿌리가 붉은 빛을 띄므로 학술적으로는 적작약이라고 한다.
王觀이라는 사람이 지은 『揚州芍藥譜』가 전해지는데, 揚州가 특히 작약으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이것에 비해서 낙양은 모란으로 유명하였다고 한다(程兆熊: 332-333).
한편 같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며 작약과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로서 牡丹(모란: *Paeonia suffruticosa*)가 있다. 이것은 높이 2m에 달하는 낙엽관목이다.
- 未는 아니나 非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薔薇未架는 장미를 가꿀 때에 시렁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줄장미가 아닌 여느 장미는 시렁에 올려 키우지 않는 것이 옳은 재배법이다.
- 凭(빙)은 빙과 같은 뜻으로서 '기댄다', '걸치다'라는 뜻이다. 不妨 石은 “돌에 걸쳐놓아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 編屏은 '花屏처럼 엮는다'는 뜻이다. 花屏은 수직으로 세운 시렁이나 울타리에 꽃을 올려 키운 것을 가리킨다.
- 束久重修는 오래 동안 묶어 놓고, 지나치게 다듬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꽃을 화병으로 만들 때에 끈으로 계속 묶어 두고 또 심하게 전정을 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을 가리킨다. 束을 『木經全書』판과 가도서점판에서는 未라고 표기하였으나, 진식의 교열 및 영조학사판을 좇아 束으로 적는다. 修는 꽃의 잎이나 가지 등을 전정하고 가다듬는 작업을 가리킨다.
- 垂는 '드리우다'는 원래 뜻에서 '유지한다', '지탱한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⑧

- 片山과 寸石은 원림 안에 설치한 石假山과 怪石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한다.
- 虛蕉影玲瓏과 관련된 표현으로서는 [園冶 借景]에서 나오는 '半 碧隱蕉桐'이 있다. 파초 잎은 넓고 얇으므로 햇빛을 받으면 반투명한 푸른빛을 띄는데, 이것이 바람을 받아 흔들리면 열고 질은 푸른빛이 일렁거리므로 영롱하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은窓의 원래 글자이다.
- 巖曲은 석가산의 바위틈을 가리킨다. 巖曲松根盤은 석가산의 울퉁불퉁한 바위틈으로 소나

무 뿌리가 넓게 뻗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소나무 등과 같은 나무가 바위틈과 같이 토층이 얇은 곳에서 자라는 경우에는 뿌리의 일부가 바깥에 노출된다. 이때 노출된 뿌리는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얽히듯 덮이게 되어 매우 기이한 풍취를 이루어낸다. 중국 회화에서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화법을 일러 ‘畫樹露根法’, 또는 ‘露根畫法’이라고 한다(『中國書畫辭典』).

- 盤礴은 1)다리를 뻗고 편하게 앉은 모양, 2) 넓은 모양을 가리킨다. 『莊子 田子方』에 ‘옷을 벗어 부치고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앉는다(解衣盤礴)’는 말이 나오는데, 중국 회화이론에서 ‘그림을 그리든 글씨를 쓰든 어느 경우에도 정신적으로 속박받지 않는다’, 즉 ‘자연을 따른다’는 창작 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葛路: 45-46).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의 원군이 장차 그림을 그리려 하자 여러 화공들이 모두 이르러 명을있었는데 한가하게 빨리 걸지도 아니하고, 명을 받아 읍하고는 서지도 아니한 채 곧 방으로 가버렸다. 원군이 사람을 시켜 그를 보게 하니, 곧 옷을 풀고 다리를 뻗은 채 벌거벗다 시피 하였다고 한다. 원군이 이르기를 ‘웁다! 이 자가 진정한 화공이다’라고 하였다(宋元君將畫圖 衆史皆至 受揖而立 筆和墨 在外者半 有一史後至者 然不趨 受揖不立 因之舍 公使人視之 則解衣盤 君曰 可矣 是真畫者也)

⑨

- 足은 ‘족히’라는 뜻이다. 뒤에 나오는 能과 대응한다.
- 徵은 證과 같은 뜻이다. ‘증거를 세우다’는 뜻이다.
- 市隱은 성시 중에서 은거하는 생활, 또는 그 거처를 가리킨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이 논문의 釋明을 참조하라. 이것과 대응하는 巢窟은 원래 ‘새둥지처럼 나무 위에 지은 집’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산림 속에 은거하는 생활, 또는 그 거처를 가리킨다.
- 勝은 ‘더 낫다’는 뜻이다.
- 鬧(노)는 시끄럽다, 혼잡하다는 뜻이다. 鬧處는 시끄럽고 번잡한 도시의 일반적 상황을 가리킨다.
- 尋은 찾다, 얻어내려고 뒤지다 는 뜻이다.
- 胡는 ‘어찌’라는 뜻이다. 何, 安 등과 같다.
- 舍는 ‘집’이 아니라 ‘버리다’는 뜻이다. 捨와 같다. 이에 대응하는 圖는 ‘그림’이 아니라 ‘圖謀하다’는 뜻이다.

⑩

- 得閒은 ‘한가한 때를 얻는다’, ‘여가가 생긴다’는 뜻이다.
- 詣(詣)는 ‘가다, 도달하다, 이르다’는 뜻이다. 卽詣는 곧장 원림으로 간다는 뜻이다.
- 隨興은 흥을 따르다, 흥을 좇다 는 뜻으로 풀이한다.

• 携遊는 벗을 끼고 노닌다. 벗과 더불어 함께 노닌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Ⅲ. 釋 明

1. 城市와 市井

계성이 원림을 꾸밀 수 있는 장소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城市地이다. 城市地라는 것은 오늘날의 도시에 해당하는 곳으로서,⁴⁾ 범위가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생업을 상공업과 서비스업 등에 의존하며, 고밀도이고 인공물이 많은 환경이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계성의 활동기인 명조 말에 이미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나타났고, 각종 상공업이 발달하여 많은 도시들이 복잡하면서도 활기 있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戴均良: 257-286). 그러나 중국의 도시는 우리의 도시와는 달리 상공업에 종사하는 평민이나 천민들도 함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질이 매우 열악하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에게 있어 도시라는 환경은 벼슬살이를 하거나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정주환경이었지 가장 이상적인 정주환경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도시관은 많은 예술작품을 통해서 표현된 전원생활의 선호사상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시의 열악함을 표현하는 문헌이나 어휘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① 도시를 표현하는 어휘

그러면 먼저 도시를 표현하는 어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市’는 오늘날에는 도시 자체를 가리키지만 원래는 ‘저자’를 뜻한다. 市라는 글자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 뜻이 분명하다. 이 글자는 冂(경)과 一(두)와 丨(곤)이라는 세 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冂은 ‘멀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잇달아 멀리 나 있는 길(丨丨)에 경계(一)가 있는 상황을 그린 글자로서 ‘경계 밖의 먼 곳’이라는 뜻도 있고, ‘멀리 둘러싸고 있는 경계’라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이런 ‘경계 안의 어떤 영역’이라는 뜻도 있다. 一은 돼지머리를 가리키지만, 之와 같은 글자로 보기도 하므로 ‘간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丨은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그을 때에는 ‘몰러섬’을, 아래에서 위로 그을 때에는 ‘나아감’을 나타낸다. 그래서 ‘서로 통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교통이나 유통을 뜻한다. 그래서 이 세 글자의 뜻을 모아 보면, ‘어떤 영역으로 가서 서로 통한다’, 또는 ‘가서 서로 통하는 어떤 영역’이다(權智庸: 113).

이 글자를 다르게 풀이해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冂을 한 폭의 천으로, 丨은 그 천을 띠에 차서 드리우고 있는 모양으로 풀이하여 두 글자를 합하면 수건이 되고 나아가서 두건이

4) 오늘날에도 중국에서는 都市를 城市라고 한다.

된다. 여기에 之와 같은 뜻인 市가 합하면 사람들이 외출복을 차려입고(市)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간다(之)는 뜻으로 풀이된다(權智庸: 113, 東亞漢韓大辭典: 561). 이것은 다름 아닌 저자이다. 그래서 市는 도시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한 것이다.

자고로 저자(場市, 市場)라는 곳은 인간의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물화를 집산, 교환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하지만 영리라는 심리가 팽배하고, 거래를 위한 교통과 대화의 소란하고, 쓰레기가 넘치는 등 그 환경 자체는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니다.

이와 같은 市는 도시 안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市場의 형태를 갖기도 하지만, 도시가 커지고 상거래가 활발해지면 상설 점포가 집중되어 거리를 형성하는 市廛의 형태를 갖기도 한다. 그래서 '市街'라는 말은 점포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반듯한 도시의 중심이 되는 길을 가리킨다.

한편 '井'은 주로 우물을 가리키지만,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물이 있는 곳은 당연히 사람이 늘 모여있게 마련이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물만 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소식을 주고받으므로 井은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市井'이라는 말은 저자를 뜻하기도 하고, 시가를 뜻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유래한 市井之人이라는 말은 시중의 속인을 가리키며, 市井雜糞라는 말은 이보다 더 알잡아보는 말이다. 또 '井戶'는 시장 가운데 있는 집을 가리키는데, 이때의 井은 옛날의 장터를 말한다고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말로서 巷이 있다. 이것은 마을 안에 있는 거리, 마을 문밖을 가리킨다. 특히 곧은길은 街라고 하고, 굽은 길은 巷이라고 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상업지역 내의 길이 아니라 주거지역 내의 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閭巷이라는 말은 여염집, 즉 살림집들이 모여있는 곳의 길을 가리키고, 특히 陋巷이라는 말은 좁고 지저분한 거리, 빈천한 사람들이 사는 협소하고 보기 흉한 골목을 가리킨다.

② 도시의 열악함

이와 같이 도시에 관련된 말들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집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 俗

먼저 城市를 '俗'으로 보는 관점을 살펴보자. 計成은 城市地에 관한 이 글에서도 "이웃이 俗에 가깝다(隣近俗)"라는 말을 쓰고 있고, 앞의 「興造論」에서도 "속되면 곧 가린다(俗則屏之)"라는 말을 쓰고 있는 등 도시-엄밀하게는 원림 밖의 환경-를 俗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俗은 1) 풍속, 2) 바라다, 원하다, 3) 있다, 계승하다, 4) 보통, 범용, 5) 속되다, 비속하다, 6) 세상, 세상사람, 7)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俗이라고 함은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환경이되, 특히 질적인 면에서 범용하기도 하고 멋이 없기도 하고 천박하기도 한 상태에 있는 환경의 질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俗世, 俗間이라고 하고, 그곳은 시끄럽다고 하여 俗聲이라는 말도 있고, 냄새가 나쁘다고 하여 俗臭라는 말도 있고, 먼지가 많다고 하여 俗埃, 俗塵이라는 말도 있다.

2) 人事와 人境

이와 같은 俗의 '생활'을 일컫는 개념은 '人事'이다. 陶淵明의 [歸田園居 其二]를 보면 "시골이라 번거로운 인간사가 없다(野外罕人事)"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俗의 '환경'을 일컫는 개념은 '人境'이다. 陶淵明은 [飲酒 其五]라는 시에서는 "사람들 틈에 농막을 짓고 산다(結廬在人境)"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사람들이 성시 안에서 원림을 조성함에 있어 꺼렸던(謹) 俗의 분위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그 중의 하나는 많은 교통량과 따라서 발생하는 소음, 즉 俗聲일 것이다. 다시 陶淵明의 「歸田園居 其二」를 보면 "빈촌이라 세도가의 마차가 오지 않는다(窮巷寡輪軌)"는 구절에서 輪(수레바퀴와 말의 배띠)이라는 어휘를 쓰고 있다. 또 陶淵明의 「飲酒 其五」에서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를 시끄럽게 울리며 찾는 자 없다(無車馬喧)"라고 하면서 車馬, 즉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의 시끄러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白居易의 「買花」에 나오는 "수도 장안에 봄이 다하려 할 때면 시끄럽게 수레와 말들이 오가며(帝城春欲暮 喧喧車馬度)"라는 구절에서도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시끄러움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交際의 번거로움이기도 하다.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성시지의 원림에서 문을 닫아건다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교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방도이다.

이와 같은 성시의 환경적 문제는 郭熙가 『林泉高致』에서 사용한 '塵囂鑿鎖'라는 개념으로 잘 요약된다. 즉 塵(먼지) (열린 장시) (고삐)鎖(사슬)은 도시의 먼지 나고 시끄러운 물리적 환경과, 인간을 조이고 엮매는 사회적 환경인 것이다(黃琪源, 1992: 164). 白居易의 시구인 "몸이 강쇄에 묶였다(身去鎖累)"라든가, 『漢書敘傳』의 구절인 "명성의 고삐와 사슬에 묶였다(繫名聲之鎖)"라든가 하는 표현(辭海)에서 관용구처럼 쓰임을 볼 수 있다.

2. 市隱

그러면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림을 과연 꾸밀 가치가 있고, 또 방도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계성은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내에는 원림을 만들 수가 없다(市井不可園也)"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이 부정적 단언은 일차적으로는 산림지에 비해 성시지가 원기로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단언 이후에도 성시에 관한 相地論을 오히려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市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시지 안에서도 제법 훌륭한 원림을 가꿀 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성시지에 관한 글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집약되고 있다.

“변잡한 시정 가운데라도 조용히 숨어 지내기를 만족한다면 자연 속에 새집 같은 움막을 짓고 사는 것 보다 오히려 나으며, 변잡한 가운데 능히 그윽함을 즐길 수 있으니 어찌 가까운 곳을 저버리고 멀리 갈 것 있겠는가? 한가한 틈이 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함께 흐드러지게 노닐 수 있다”(足微市隱 猶勝巢居 能爲闌處尋幽 胡舍近方圖遠. 得間即詣 隨興携遊).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은 다음의 것들이다.

① 市隱

城市地の 원림은 변잡한 市井 안에서는 들 수가 없지만, 일정한 장치를 도입하여 잘 꾸미면 市隱, 즉 “城市 안의 隱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은일을 하는 장소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계성도 城市地보다는 다른 환경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속세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속세에 파묻히지도 못한 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든가, 양다리를 걸치던가 하는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므로 성시 안에서 원림을 꾸미는 까닭은 속세의 생활을 하면서도 은일의 멋을 즐기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성은 “변잡한 가운데 능히 그윽함을 즐길 수 있으니 어찌 가까운 곳을 저버리고 멀리 갈 것 있겠는가?(能爲闌處尋幽 胡舍近方圖遠)”라고 묻고 있다. 또 “성시가 원림의 터로서 좋은 점은 편리한 데에 있다(城市便家)”라고 [相地] 서론에서 갈파하고 있다.

한편 晉의 王廉倨가 일찌기 “小隱은 陵藪에 숨고, 大隱은 朝市에 숨는다”라고 했듯 진정한 은사는 오히려 조정과 성시 안에 숨을 수가 있으니, 城市地 안의 원림은 바로 그러한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표현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심오한 동기 때문에 성시지 원림을 영조하게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솔직하게 보건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를 떠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입장은 郭熙의 『林泉高致』에서 산수화를 그리는 동기로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즉 그는 모든 군자들이 산수를 사랑하는 것은 전원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 바탕을 키우고자 함이고, 자연 속에서 뛰어난 경관과 벗하면서 예속의 구애를 받지 않으려 함이고, 자유롭게 야생의 동물을 벗하고자 함이고, 신선과 성인의 경지에 접근하고자 함이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리워하고 벗하려는 마음은 꿈속이나 있을 뿐 현실의 감각세계와는 단절되어 있다”(林泉之志 烟霞之侶 夢寐在焉 耳目斷絶)라고 하였다. 그래서 출사를 통한 세속적 출세를 무시할 수 없으면서 은일을 꿈꾸는 군자가 집안 마루에 앉은 채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坐窮泉壑’의 방도로서 산수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黃琪源, 1992: 158-167).

② 得間

그러면 이와 같은 성시 속의 원림이 가능하면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계성은 이 점에 대하여 먼저 “한가한 시간을 얻는다(得間)”라고 하여 현실생활의 꼭 조이고바쁜 시

간 속에서 餘暇를 얻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예 한가한 은일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시로 즐기는 은일의 원림이 아니라, 바쁜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한시적으로 즐기는 여가의 원림이 바로 성시 안에 꾸민 원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間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것은 뻑뻑한 일과 속에서 얻어내는 빈틈인 '時間' 이기도 하고, 빼곡한 도시공간 속에서 얻어내는 빈틈인 '空間' 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곧장 원림으로 갈 수 있다(得間卽詣).

이 둘이 있고 또 어울려야만 비로소 성시 안에서 원림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소중한 원림은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흥을 좇아 벗들과 어울려서 즐긴다(隨興携遊)”라고 하였으니, 間은 時間과 空間 뿐 아니라 人間이기도 한 것이다(黃琪源, 1996: 56). 이 점은 산림지 원림에서 獨樂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黃琪源, 1996: 58-59).

한편 計成은 山林地에 베푸는 원림에서는 “한가롭게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즐긴다”(閒閒即景)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3. 立地를 위한 조영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림을 성시지 안에서 꾸미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영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그는 입지의 관점에서는 近郭과 地偏을, 地偏의 경치를 보완하는 장치로서는 門掩과 柴荊과 開徑, 그리고 累雉와 臨濼를 제시하고 있다.

① 近郭과 幽偏

계성은 城市地 안에서 원림을 꾸밀 만한 터로서 그 입지 자체가 “그윽하고 후미져야(幽偏)”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가 이미 [園說]에서 모든 원림의 터로서 적합한 조건을 “땅이 후미진 곳이 좋다(地偏爲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성시지 안에서는 이 점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곳은 [相地 序論]에서 논한 바 “도시 근교에서 원림을 꾸밀 기이한 곳인 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네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探奇近郭 遠來往通衢)”인 것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성시지 안에서 이처럼 그윽하고 후미진 곳은 어떤 곳일까? 오늘날의 도시도 그러하지 만 옛날의 도시에도 성곽 안에 산, 구릉, 하천, 호소, 습지 등과 같이 인적이 드물면서도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로 이런 곳들이 성시지 園基로서 적합한 곳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지는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도연명은 도시 안에 농막을 짓고 살면서 은일을 얻은 까닭이 “마음이 머니 땅도 저절로 외지다(心遠地自偏)”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심리적으로 달성한 경지인 것이다. 그래서 計成은 「借景」에서 “성시가 시끄럽고 천하므로 반드시 한가롭고 고즈넉한 곳 가까이에 거처를 택하여야 한다(城市喧

卑必擇居閒逸)이라고 하여 성시지 원림의 상지하는 원리를 幽偏, 閒逸 등에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원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과 바로 붙어있거나 주택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성은 이러한 원림을 傍宅地 園林이라고 하여 따로 논하고 있다.

② 門掩과 開徑과 柴荊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물리적 조건이 맞는 땅을 찾은 터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도 택하여 원림을 꾸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계성은 탐탁하지는 않지만 원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문을 닫아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門掩無譁)”라고 하여 문을 닫아건다는 행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陶淵明의 「歸田園居 其二」를 보면 “빈촌이라 세도가의 마차가 오지 않는다(窮巷寡輪軌)”는 구절 다음에 “내낮에도 사립문을 굳게 닫으니(白日掩荊扉) 말쑥한 방에 때 낀 생각이 없다(虛室絕塵想)”이라고 하여 역시 내적 은일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을 닫아서는 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문은 항상 닫혀 있기만 하고, 園主는 일체 외출을 하지 않을 것인가? 즉 陶淵明의 「飲酒 其十二」의 구절처럼 “杜門不復出”할 것인가? 또 누가 찾아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인가?

계성은 이 점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나 문을 닫아 번거로운 분위기를 막은 후에 오솔길을 낸다(開徑)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한가롭고 운치 있는 출입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도연명은 술병을 들고 찾아오는 벗과 이웃들의 방문에 대해 그의 시 곳곳에서 읊고 있다. 게다가 그는 이 원림의 문을 柴荊, 즉 사립문으로 설치하여 성시지 안의 원림이지만 소박한 산림지 원림이나 촌장지 원림의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杜甫의 「客至」라는 시에 이 길과 문에 잘 어울리는 구절이 있다. 즉 “꽃으로 가꾼 길, 손님 없어 여태 쓸지 않았는데, 쪽으로 엮은 문, 그대 위해 이제 처음 연다(花徑不曾緣客掃 蓬門今始爲君開)”이다(池榮在 편: 349).

③ 累雉

계성은 원림의 문에 대한 사항에 이어서 “멀리 날아갈 듯한 울타리를 쌓는다(遙飛累雉)”라고 하면서 원림의 울타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울타리의 역할은 외부의 무단 침입자나 소음을 막는 일반적 역할에 덧붙여 計成이 「興造論」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속된 외부의 속된 경관을 가리어 막는(俗則屏之)”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어쨌거나 성시원림의 울타리는 멀리 날아갈듯 높이 쌓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累라는 말이 암시하듯 이 울타리는 겹겹으로 둘러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고 있는 중국 강남의 원림들을 보면 하나같이 매우 높고 두터운 울타리를 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

그는 『牆垣』에서 원림의 울타리를 만드는 일반 제식을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

할 것은 울타리의 구조나 재료 등에 관한 사항보다도 울타리를 설치할 때의 기본 원칙이다. 즉 그는 “아취가 있고 시속을 준수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면 원림의 아름다운 경계를 이룬다”(從雅適時 令人欣賞 園林之佳景也)라고 한다.

計成은 「相地」서론에서 “돌을 모아 돌레에 울타리를 쌓으면 산 속에 거처하는 운치가 난다(聚石累圍牆 居山可擬)”라고 하여 울타리의 자재로서는 돌을 권장하고 있으며,⁶⁾ 달성하고자 하는 경지는 성시 안에서 산중을 재현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臨濠와 長虹

계성은 성시지의 원림 돌레에는 울타리 뿐 아니라 垓字를 설치하여 주변과의 격리를 강화하면서 경관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해자는 ‘臨濠’이라 하여 반듯할 필요가 없이 구불구불한 것을 높이 친다.

그리고 ‘柴荆橫引長虹’이라 하여 이 해자에 무지개처럼 생긴 다리를 걸쳐놓고 속세와 원림의 입구인 사립문을 잇도록 권유하고 있다.

4. 園林의 景物

이와 같은 원림의 기틀이 마련되면, 다음과 같은 경물을 갖추기를 제안하고 있으니, 이는 ‘조영’ 원리인 동시에 이와 같은 경물을 설치할 수 있는 터를 잘 고르라는 ‘상지’ 원리이기도 하다.

① 植生

1) 기본 식생

성시원림 안의 식생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즉 구불구불한 길 주변에 심는 대나무(開徑逶迤竹木), 넓은 뜰이 있다면 그 곳에 심을 수 있는 오동나무(院廣構梧: Firmiana), 물굽이를 이룬 곳이 있다면 그 곳에 어울리는 버드나무(提灣直柳)가 그것들이다.

이것들이 원림 안의 길, 뜰, 물굽이와 같은 공간과 어울리는 식생이라면, 원림 안의 건물과 어울리는 식생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즉 정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밭(安亭得景 蒔花笑以春風), 누각에 그늘을 드리우는 참오동나무(虛閣蔭桐: Pawlonia), 난간과 어울리는 작약(芍藥宜欄), 열린 창 너머로 영롱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파초(窓虛蕉影玲瓏) 등이 그것이다.

또 바위와 돌에 어울리게 심을 수 있는 것으로서는 바위 위에 심어 줄기가 휘고 뿌리가 넓게 퍼지는 소나무(巖曲松根盤礴), 굳이 시렁으로 받쳐주지 않고 돌에 기대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장미(薔薇未架不妨凭石)를 논하고 있다.

5) 울타리가 높은 까닭은 몇 가지로 해석된다. 중국 도시의 특성상 원림을 갖출 만한 부호나 귀족들의 제택과 서민들의 주택이 인접하거나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는 밖의 속경을 가리고자 하는 차경을 위해 설치되고, 또 방화나 방범용으로 설치되기도 하고, 또 도시의 악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6) 돌로 쌓는 기법을 계성은 石 이라고 한다.

2) 보편성

이것들은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 또는 생활환경 속에서 가꾸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라 서, 중국 회화에서 이른바 ‘常見樹’라고 하는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심어 지는 위치, 즐기는 풍류 등은 중국 사대부의 생활이나 정서 속에서 상당히 보편화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파초를 예로 들어보자. 白居易의 「夜雨」라는 시에 “창 너머 밤비 내리는 줄 알겠네 파초 잎의 빗방울 소리 먼저 들리니”(隔牕之夜雨 芭蕉先有聲)이라는 구절에서 보듯 파초는 창밖에 심되 가까이 두어 그 자태 뿐 아니라 소리까지 완상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또 오동나무는 그 넓은 잎이 드리우는 그늘을 즐기기 위해 누가 가까이 심기도 하거니와, 성인의 도래를 기다린다는 뜻에서 사대부들이 원림에 즐겨 심었다.⁷⁾ 그래서 計成은 「借景」에서 “반쯤 열린 창 너머로 파초와 오동나무의 넓고 푸른 잎이 일렁거리면서 숨었다가 드러난다(半窗碧隱蕉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작약은 정자 등의 난간 돌레에 심어 내려다보면서 그 자태와 향을 즐겼다.⁸⁾ 또 바위 틈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낙락장송은 산수화에서 즐겨 그리는 기본 구도이기도 하다.⁹⁾

여기에 덧붙여 숲(林)을 만들 수가 있다(茲易爲林)고 하였으니 이는 원림이 제법 넓은 경우 인공적으로 재식하지 않고 자생하는 수림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산림지 원림에서 말하는 雜樹에 해당한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은 자연식생이기 보다는 인공재식의 소산이니, 적절한 재식환경을 찾던가 조성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장미 같은 것은 손질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여 관리의 중요성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성시원림 안에서 자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식물의 양과 종류가 아주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권장하는 수종은 대개가 다른 입지조건에 처해있는 본격적 원림에서 애용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잘 자라게 하자면 제한된 면적 안에서 생육환경이 좋은 지점을 잘 선정하여야 하는 ‘터 고르기’와, 만약 부적합하더라도 인공적으로 그 생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터

7) 오동나무는 그 잎이 무척 넓고 넓게 펼쳐지므로 그 자태가 장중하면서도 표표하여 봉황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중국의 고대 성군 중의 한 분인 “황제가 즉위함에 봉황이 동원의 오동나무 위에 날아와서 대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몸을 감추고 머물렀다(黃帝即位 鳳乃止於東園桐樹上 食竹食 沒身不去)”라는 「韓詩外傳」의 구절이 전해진다(程兆熊: 449). 담양 소재원에 오동나무를 곁들인 待鳳臺라는 모정이 있다.

8) 王觀이라는 사람이 지은 「揚州芍藥譜」라는 책에 중국의 작약 재배문화가 소개되어 있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낙양의 모란, 양주의 작약을 높이 쳤다고 한다. 양주에는 옛날 용흥사의 작약이 유명하였다고 한다. 한때 작약을 잘 키운 주씨네는 작약이 만개하면 자기집 정원의 정자를 작약으로 장식하여 놀러 오는 손님을 기다렸다고 한다(程兆熊: 331-333).

9) 이 논문의 譯註의 注譯 ⑧을 참조하라.

다스리기'를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식생들은 정원의 경물들과도 잘 어울리는 경관을 이루어야 하니, 경물들을 포치하기 좋은 지점과 식생에게 좋은 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계성은 농막(墅)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그 대신에 숲을 가꾸라고 권장하고 있다. 성시원림 안에 있는 농막은 바로 도시 안에서 전원의 풍치를 즐기하고자 하는 장치이니, 이것을 두자면 농막만 짓는 것이 아니라 園圃도 곁들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기 안에서 원포의 적지를 찾아보라는 뜻이 담겨 있다.

② 建物과 院

植生과 水景에 대해 상세하게 논함에 비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먼저 “터를 좇아 집을 짓는다(架屋隨基)”라고 하였으니, 이때의 屋은 원림 안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주생활을 하는 집을 말한다. 원림 안에서 이런 집을 지을 만한 터를 골라서 앉히려는 뜻이다.

한편 정자에 대해서는 “정자를 잘 세워 좋은 경치를 얻고 봄바람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한다(安亭得景蒔花笑以春風)”라고 하여 조망이 좋은 지점을 택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得景’, 즉 원경을 멀리 바라다보면서 차경할 수 있고 근경에 있는 꽃밭을 굽어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하여야 하니, 원림 안에 있는 높은 지점-자연적 고지이거나, 인공적 가산이거나-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相地」서론에서 “높고 평평한 터에는 정이나 대를 짓기 알맞다(高方欲就亭臺)”라고 한 바 있다.

또 누각에 대해서는 “허허로운 누각에 오동나무의 그림자를 드리운다(虛閣蔭桐)”라고 하여 인접하여 오동나무가 잘 자랄 만한 위치를 택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相地」서론에서 누각을 두기 좋은 지점은 “개울에 바짝 붙고 땅에서는 띄운 곳(臨溪越地)”라고 하였으니, 개울을 손질할 때에 누각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산림원림에 두는 누각은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한다(樓閣礙雲霞而出沒)”라고 하여 이와는 다른 포치 개념을 취하고 있다.

건물과 관련시켜 주목할 것은 院이다. 이것은 주변이 담으로 둘러싸인 궁실이나 관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뜰이라고 풀이된다. 원림의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건물 주변에 포치되는 작은 뜰, 院子 또는 院落의 효용성이 높은 것이다.

③ 水景

「相地」서론에서 모든 원림의 터담기에 있어 수원을 먼저 찾으라고 하였으니 성시원림 역시 수원 찾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식수나 생활용수는 비교적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필요한 것은 원림 속의 수경을 조성할 풍부한 물이다.

성시원림 안의 수경은 경우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클 것이나 몇 가지 요소를 조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개울

개울이 흐를 때에는 물길을 잘 통하도록 준설을 하고, 개울의 기슭에는 돌을 쌓아 튼튼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다(澗水 堅之石麓). 이는 성시 안의 개울이 별로 신통치 않을 것이므로 인공을 가하여 제대로 흐르는 개울을 만들라는 것과, 땅이 모자라고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안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2) 池塘

성시원림 안에도 흐르는 물과 더불어 지당을 꾸밀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는 「相地」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낮고 우묵한 곳을 골라 지당을 만드는 방식”(低凹可開池沼)이다. 여기에도 돌이나 흙으로 둔덕을 보강하는 塘堤 방식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계성은 이 池塘의 운치에 대해 매우 특별한 묘사를 하고 있으니, 이는 곧 지당의 입지조건이자 설계내용이기도 하다. 즉 “못이 맑아서 달빛이 잘 비치어야 한다(清池涵月)”는 것이다. 못이 맑으려면 그 물이 깨끗해야 하니 수원도 맑아야 하고 주변에 오염물질이 없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또 달빛이 잘 비치어야 한다면 못 주변이 지나치게 수목 등으로써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맑은 못에 비친 밝은 달은 원림의 외부에 있는 “마을의 수많은 인가들이 내뿜는 연기를 씻겨낸다(洗出千家煙雨)”하였으니 그 운치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좁은 원림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이웃집으로부터 먼 곳에 지당을 만들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또 맑은 못에 비친 밝은 달빛은 “사방의 서가에 꽂힌 책을 비춘다(移將四壁圖書)”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운치 뿐 아니라 지당과 집을 가까이 포치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지당은 마치 거울(鏡) 같은 影池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3) 瀑布

이 연못에는 작은 폭포를 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폭포는 인공폭포임에 분명하지만 오늘날 모터를 사용하여 양수한 후 떨어뜨리는 것과는 달리 인공적으로 지형을 만들고 수로를 끌어 들여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흰 폭포는 연못 속으로 비단을 펼친 듯 날아서 떨어진다”(素入鏡中飛練)라고 하였으니, 이 폭포는 비록 작지만 떨어지는 수류의 형태가 마치 흰 비단폭처럼 곱게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계성은 「掇山」에서 돌을 쌓아 폭포를 만드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울타리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 도랑을 만들든지 벽처럼 높은 가산의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와 작은 웅덩이에 모이게 하고, 돌로 만든 수구를 돌출시켜서 넉넉한 물이 넘쳐흘러 아래로 떨어지게 하면 비로소 천연의 폭포처럼 된다(可潤至牆頂作天溝 行壁山頂 留小坑 突出石口 泛漫而下 裳如瀑布)”라고 한다.

④ 石物

가산이나 석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은 없으나 “작은 산은 풍치가 많고 작은 들은 情을 솟게

한다(片山多致 寸石生情)”라고 하여 원림 안에 작은 규모의 假山을 둘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계성은 「掇山」에서 假山 쌓는 기법을, 「選石」에서는 원림에 쓰는 돌을 고르는 기법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1) 假山

철산을 함에 있어서는 “밭길 닿는 데로 따라가면 특별한 경지가 없는 듯하나 고개를 들어보면 깊은 정취가 우러나오게 한다. 좁은 오솔길은 구불구불 길게 하고, 봉우리는 빼어나고 옛 정취를 느끼게 한다. 곳곳에 뛰어난 경치가 있게 하고, 가까운 곳에 원생의 산림이 있는 것처럼 한다(信足疑無別境 舉頭自有深情 蹊逕盤且長 峰巒秀而古 多方景勝 咫尺山林)”는 것이 기법의 요체이다. 이때 회화 기법이 준용되고 있으니 “회화에 표현된 그윽한 정취를 가산의 창작에 반영하고, 실제 산수의 풍부한 정경을 가산 속에 불러넣는다(深意畫圖 餘情丘壑)”라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꾸며진 가산은 “자연의 진산의 의경을 살려서 가산을 만들되, 가산은 진산의 의경을 제대로 이루어야 한다(有眞爲假 做假成真)”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2) 置石

「選石」의 내용은 대부분이 돌의 종류별 특징에 관한 것이지만, 원림에 돌을 놓는 기법도 제시되고 있다. 원림에는 돌을 한 점 놓기도 하고 여러 점을 쌓기도 하는데, 한 점만 따로 놓을 때에는 “무늬나 색채가 영롱할 뿐 아니라 생김새가 교묘한 돌을 취하면, 단 한 점만 놓아도 알맞다(取巧不但玲瓏 只宜單點)”라고 하였고, 여러 점을 쌓아 놓을 때에는 “석질이 단단하고 형태가 얽힌 돌을 구하고, 고졸스러운 형세를 가진 돌을 고르면, 층층으로 높이 쌓아도 충분히 견딘다(求堅還從古拙 堪用層堆)”라고 하였다.

철산과 마찬가지로 돌을 놓을 때에도 회화기법을 준용하라고 하였으니, “작은 철산은 倪瓚의 雲林石法을 본뜨고, 큰 철산은 黃公望의 黃子久石法을 스승으로 삼아 꾸민다(小做雲林 大宗子久)”라고 하였다.

⑤ 借景

성시지의 원림에서는 외부의 속된 경관을 가리는 遮景이 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외부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울타리 주변에 대나무나 잡목을 우거지게 심었지만 그 너머로 성시의 성곽 꼭대기가 아스라이 보인다든지(竹木遙飛疊雉), 도시 밖의 푸른 산봉우리는 병풍처럼 원림을 에워싸게 보이도록 한다든지(靑來郭外環屏)하는 遠借 기법이 소개되고 있다.

게다가 작약, 장미, 파초 같은 화초, 소나무, 오동나무 같은 수목, 지당과 폭포, 가산과 괴석 등을 매우 가까이 놓고 즐기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는 隣借에 속한다. 또 이것들은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니, 應時而借의 기법이기도 하다.¹⁰⁾

10) 借景의 기법에 대해서는 황기원(1994: 65-82)을 참조하라.

Ⅳ. 結 論

相地는 부지 선정, 부지 분석 및 부지 설계라는 3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는 조영활동이다. 城市地 원림은 園基 중의 으뜸으로 치는 山林地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조영되는 것이므로 상지 또한 이런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1. 부지 선정

計成은 성시지라는 곳이 원래 원림을 가꾸기에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곳이라는 점과, 그래도 성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윈튼 윈치 않튼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 속에서 매우 적극적인 원림 조영을 시도한다.

그래서 성시지에 원림을 조영할 경우 적합한 부지의 조건은 幽偏, 즉 ‘그윽하고 후미짐’이다.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遠來往通衢)’이자, ‘성시지 안팎을 탐색하여 생활을 하는 저택과 가깝지만 기이한 곳(探奇近郭)’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런 곳은 성벽 주변, 산기슭, 습지, 버려진 농경지, 잡목림 등 도시의 공리적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한계토지의 성격을 가진 곳일 것으로 짐작된다. 계성이 논한 성시지의 원림의 상황을 따져 보면 잡목림이 있고, 성벽이나 먼 산이 쳐다보이며, 개울을 파고 물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이러한 입지조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림 안에는 좁지 않은 뜰을 둔다든지, 잡목림도 있다든지 하여 그 면적이 적지 않으며, 원주가 바쁜 일상생활에서 잠을 내어 쉽게 오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지 분석 및 설계

이 부지는 산림지와는 달리 원림을 조영하기에 天然之趣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비보하면서 적극적인 조영을 하여야만 그런 대로 만족스러운 원림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① 설계 기법

1) 외부 조건의 설정

번잡한 도시환경과 인접한 상황에서 매우 유편한 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림과 외계의 경계를 확실하게 설정하여야 함을 설계의 주요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돌을 쌓아 높고 두터운 울타리를 둘러치고, 그 울타리 밖에는 해자를 두며, 울타리 안에는 대나무와 잡목림을 가꾸어 외부와 차단하는 장치를 확실하게 한다.

비록 운치를 살려 소박한 사립문을 내어 외계와 통하게 하지만, 해자에 걸쳐놓은 다리를 지

나야만 비로소 원림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한다. 게다가 그 사립문은 평소에는 굳게 닫아 걸어둔다.

2) 토지의 구성

원림을 구성하는 공간단위는 사립문에서 들어와서 오솔길을 거쳐 중심공간으로 들어오는 '進入' 공간, 임시로 거처하는 집과 집 주위의 뜰로 이루어진 '生活' 공간, 정자와 누각, 화단, 수경, 가산 등으로 이루어진 '興遊' 공간, 그리고 잡목림 등으로 채워진 '充塡'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진입공간은 원림의 중심과 외계를 연결하면서도 차단하는 완충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원림을 찾아오면서 생겨난 기대감은 해자 주변의 버드나무와 들담을 보면서 생동하기 시작하고, 무지개처럼 굽게 놓인 다리를 건너 사립문을 열고 원림 안에 들어오면서 고조된다. 이 진입공간의 중심에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나 있고 울타리 둘레에는 대나무 등 잡목림이 무성한 것으로 보인다.¹¹⁾ 그러나 그 나뭇가지 사이로 성벽 등 도시의 원경이 언뜻 보이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생활공간에는 가끔 찾아오지만 거처할 수 있는 가옥이 놓여진다. 이 원림은 혼자 즐기는 곳이 아니라 벗과 더불어 즐기는 곳(携遊)이라고 하였으니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갖춘 건축물인 것으로 보인다. 또 책장에 달빛이 비친다고 하였으니 분명히 서재 뿐 아니라 숙박할 수 있는 방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옥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휴식, 환담, 독서, 식사 뿐 아니라 취침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생활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옥의 주변에는 넓은 뜰(廣院)이 놓여진다. 이 뜰의 바닥은 지피식물로 덮기보다는 판돌을 포설한 공간일 것이다.¹²⁾

휴유공간은 아마도 생활공간의 뒤쪽에 조성되는 후원 형식을 띠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자나 누각을 설치한다고 하였으니 이 공간 또한 그 면적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작약과 장미를 심는 화단, 지당과 폭포가 있는 수경, 가산이나 괴석이 있는 석경 등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이 공간은 원래 표고가 약간 높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높인 곳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야만 수경이 유지될 수 있고, 먼 산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전공간은 이러한 단위 공간 사이를 연계하면서도 분절하는 공간 및 울타리 둘레의 공간일 것이다. 여기에는 잡목림이 조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경물의 어울림

그런 대로 좁지는 않지만 산림지 원림의 경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림을 구성하는 경물을 매우 절제하면서도 현명하게 포치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11) 원림의 오솔길을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는 황기원(1994: 58-59)을 참조하라.

12) 『園治 鋪地』에서 포장 기법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뜰에는 오동나무를 한 그루 심어 그늘을 만들어 주고, 해자의 뚝에는 버드나무를 한 두 그루 심어 운치를 자아내게 하고, 건물 창 너머에는 파초를 심어 청량한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건물 난간 옆에는 작약꽃밭을 꾸며 계절감을 즐기게 하고, 바위틈에는 소나무를 심어 심산 유곡의 경지를 만들어 낸다든지 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단위공간들이 매우 함축적 의미를 지니면서 기능적으로도 합리적으로 구성된다.

3. 因借

계성이 원림 조영에 있어 으뜸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리는 因借이다. 그러면 성시지 원림에서 因借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¹³⁾

여러 공간과 경물이 서로 어울려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互相借資가 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땅이 부여하는 환경조건에 의거하되, 적합하게 제어하고 있으니, 因地制宜를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술적 기량을 발휘하여 잠재하는 환경적 적합성에 부합하도록 할 뿐 아니라 나쁜 조건을 적극적으로 비보하여 바람직한 수준의 원림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精而合宜의 원리가 충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시지 원림에서는 차경보다는 인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차경 중에서 원경을 즐기는 遠借보다는 가까운 근경을 즐기는 隣借 기법과, 계절의 변화를 즐기게 하는 應時而借를 도입하여 원림 내의 적극적 조영을 도모하는 因地를 돕고 있다.

그래서 성시지 원림은 다른 원림과는 달리 바쁜 생활 속에서 한가한 시간을 확보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웃 사람 속에서 같이 즐길 인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요체인 것이다.

—참고 및 인용문헌—

〈底本〉

計無否(1634), 『木經全書』, 隆盛堂(서울: 도서출판 造景社, 1990 영인).

計無否(1634), 『園冶』, 北平: 中國營造學社, 중화민국 22년.

計無否(1634), 『園冶』, 北京: 城市建設出版社, 1957, 영인본.

計成 撰(1634), 『園冶』, 廣文書局, 영인본.

〈校閱 및 註解 참고 서적〉

陳植(1988), 『園冶注釋』 제2판,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3) 황기원(1994)을 참조하라.

- 陳植(1981), 『園冶注釋』,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張家驥(1993), 『園冶全釋』, 太原: 山西江人民出版社.
- 曹汛(1984), “園冶注釋 疑義舉析”, 『建築歷史理論』 54, pp.90-118.
- 黃長美 撰述(1986), 『園冶』, 臺北: 金楓出版社.
- 上原敬二(1975) 편, 『解說 園冶』, 東京: 加島書店.
- Ji, Cheng(1634), *The Craft of Gardens*, trans. Alison Hardi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참고 및 인용문헌〉

- 岡大路(1938), 『中國宮苑園林史考』, 常瀛生 역, 北京: 農業出版社, 1988.
- 岡大路(1943), 『中國庭園論』, 金永彬 역, 大邱: 中文出版社, 1987.
- 江溶·王德勝(1985) 편, 『中國園林藝術概觀』, 蘇州: 江蘇人民出版社.
- 郭熙 郭思 찬(1080), [林泉高致], 俞劍華 편저, 『中國畫論類編』,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56.
- 喬勻(1982) 편, 『中國園林藝術』, 香港: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香港分店.
- 權智庸(1974), 『部首活用 基礎漢字明解』, 서울: 修智書林.
- 金學智(1990), 『中國園林美學』, 江蘇文藝出版社.
- 單樹模(1987) 주편, 『中華人民共和國 地名詞典: 江蘇省』, 北京: 商務印刷館.
- 戴均良(1992) 주편, 『中國城市發展史』, 哈爾濱: 黑龍江出版社.
- 憑種平(1985) 편저, 『中國園林建築』,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小尾郊一(1962), 『中國文學과 自然美學』, 서울: 도서출판 서울(1992).
- 王毅(1990), 『園林與中國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李國豪(1987) 주편, 『建苑拾英』, 上海: 同濟大學出版社.
- 李允 (1982), 『華夏意匠』, 香港: 廣角鏡出版社.
- 張家驥(1986), 『中國造園史』,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張家驥(1991), 『中國造園論』, 太原: 山西江人民出版社.
- 章元鳳(1991) 편저, 『造園八講』,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張基槿 편저(1991), 『陶淵明』, 서울: 太宗出版社.
- 張基槿 편저(1991), 『杜甫』, 서울: 太宗出版社.
- 張基槿 편저(1991), 『白樂天』, 서울: 太宗出版社.
- 程兆熊 편저(1991), 『中華園藝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 周維權(1990), 『中國古典園林史』,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池榮在 편저(1991), 『中國詩歌選』, 서울: 乙酉文化社.

陳從周(1983), 『揚州園林』,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陳從周(1984), 『說園』,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彭一剛, 『中國古代 庭園林의 分析』, 김중태 역,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9.

『中國書畫辭典』(1990), 北京: 華文出版社.

『中國美術辭典』(1987),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中國大百科全書 建築園林城市規劃』(1988),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東亞漢韓大事典』(1982), 서울: 東亞出版社.

『辭海』

黃琪源(1992), “[林泉高致]에 나타난 郭熙의 自然觀”, 『環境論叢』 30.

황기원·이유직·구태익·전영옥(1993), “[園冶·興造論] 研究 1: 主者論을 중심으로”, 『環境論叢』 31.

黃琪源(1994), “[園冶·興造論] 研究 2: 因借論을 중심으로”, 『環境論叢』 32.

黃琪源(1995), “[園冶·相地論] 研究 1: 通論을 중심으로”, 『環境論叢』 33.

黃琪源(1995), “[園冶·相地論] 研究 2: '山林地'를 중심으로”, 『環境論叢』 34.

Johnston, R. Stewart(1991), *Scholar Gardens of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 Dongchu(1991), *The Way of the Virtuous: the Influence of Art and Philosophy on Chinese Garden Design*, Beijing: New World Press.

Keswick, Maggie(1991), *The Chinese Garden*, London: Academy Editions.

Yoshikawa, Isao(1990), *Chinese Gardens*, 東京: グラフィック社.

Zhu, Junzhen(1992), *Chinese Landscape Gardening*,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